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통해 농업 성장 잠재력·경쟁력 강화

스마트·특화작목·기후변화·인재 '4대 전략 사업' 집중 추진

화순군이 농업·농촌의 성장 잠재력·경쟁력, 농업 브랜드 가치 제고에 역점을 두고 농촌진흥사업을 확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예산 70억 원을 편성해 농업·농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스마트 팜 확대, 특화작목 육성, 기후변화 대응 안전 농산물 생산, 농업 인재 양성을 4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다.

◆ 스마트 팜, 축산·노지 작물로 확대... "전국 최대 스마트 팜 조성"

먼저 규모 면에서 전남 중심지로 자리 잡은 스마트 팜을 확대하고 특화작목 경쟁력 키우기에 힘쓰고 있다. 군이 2014년부터 시설 원예 파프리카·토마토·딸기 농장 66곳(57ha)에 스마트 팜을 조성해, 규모 면에서

화순은 전남 최대 스마트 농업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2019년부터는 '스마트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스마트 팜 작물 생육환경 데이터를 농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스마트 팜 운용 역량도 키우고 있다.

시설 원예 농가는 스마트 팜 도입 후 온실 관리 시간과 노동력 50% 절감, 수확량 18% 증가, 관행 재배 대비 작업 편리성 4배 향상, 농업 소득 증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효과를 보고 있다.

올해는 축산과 노지 작물로 스마트 팜 영역을 확대해 한우·젓소 번식 효율 향상, 노지 스마트 관개 시스템 보급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복숭아 명품화, 틈새 작목 집중 육성... 고품질 브랜드 창출

인기가 많은 화순 복숭아의 재배 면적은 235ha로 전남 최대 규모다. 군은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은 복숭아를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2년까지 7억여 원을 투입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품종 갱신, 친환경 생력 재배 기술 확산, 공동선별 기반을 구축한다. 2025년까지 전남 최고 품질, 2030년까지 전국 최고 브랜드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미래 화순군을 대표할 작목 발굴과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1읍·면 1특산' 소득 작목 육성사업을 전개해 13개 읍·면에 삼구, 단호박 등 10개 작목을 도입했다. 앞으로 경영분석, 소비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화순형 특화작목'을 선정하고 미래 소득 작목으로 집중

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 친환경 농업 지원, 아열대작목 육성... 안전분석센터 건립·운영

친환경 농업 정착, 농산물 안전성 강화, 기후변화 대응 작목 육성을 환경 이슈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도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친환경 농업과 기후변화 대응 작목 육성 지원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그 중 하나가 '농산물 안전분석센터'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47억 원을 들여 농산물 안전분석센터를 건립, 2024년부터 지역 내 재배·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최근에는 아열대작목 도입과 재배 규모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19년부터 2년간 패션프루트를 도입, 재배지 1.5ha를 조성하고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배기술을 실증하고 있다.



화순군 청풍면 차리 일대에 조성된 토마토 스마트 팜(ICT 접목 벼로형 유리 온실) 단지 전경.

올해부터 2022년까지 2년간 4억여 원을 투입해 수출규격에 맞는 고품질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앞으로 아스파라거스 글로벌 GAP 인증을 획득해 수출국을 일본에서 미국, 유럽으로 확대하고 수출작목으로 육성한다.

2008년 개설해 올해 14기를 맞는 농업인대학,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과 온라인 마케팅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년 농업인 육성, 귀농인 유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미래 농업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도 대응하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진흥사업은 농업 발전을 위한 '씨앗 사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스마트 팜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치유, 가공 등 융·복합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담양군은 지금까지 분실 시에만 가능했던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사유와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담양군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는 1,512건으로 이 중 분실 외 사유로 438건(약 29%)이 재발급됐다. 지금까지는 분실 외에 훼손이나 기재 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재발급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24(전자민원창구)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에는 사유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으며,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차 없는 거리' 행사 열어

구례군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구례읍 봉성로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구례중앙초교, 구례여중 등 6개 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구례읍 봉성로 경찰서 로터리에서 구례고등학교 정문까지 약 560여 미터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문화행사와 풍장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구례 시민단체인 '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 주도로 봉남 이장, 봉남리 상가변영회 등 관련 당사

자와 기관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탈탄소시대의 지역 교통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작은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오전에 참여했던 관내 초등학생들의 손팻말 행진과 오후 중고교 학생들의 하교 행렬은 평소 차량이 어지럽게 주차차 되어 있고 보행이 어려웠던 거리에 남녀노소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풍경이 연출되어 활력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례=박진호기자

나주시, 올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보고회

나주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 환경 제공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청사 이화실에서 정찬균 부시장 주재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서별 실행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년(2020~2022년) 실행계획' 점검의 일환으로 2020년 추진 실적 점검과 올해 추진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나주시는 '건강하고 조화로운 100세 도시 나주'를 비전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3대 목표인 '사회적 참여와 활발한 노후',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존중과 통합'에 기반한 55개 부

원 및 주거급여 지원 등을 추진한다.

2022년 WHO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멤버십 재인증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는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고령사회 정책의 국제적 정보, 정책 공유의 장이다.

나주시는 2019년 전라남도 최초이자 전국 지자체 중 12번째 회원 도시로 가입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회원 국가와의 선진화된 고령사회 대응 전략·정보 공유는 물론 노인 복지 정책 추진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정찬균 나주부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과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부서별 정책 공유와 상시적인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어르신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평생 살아가기에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정찬균 부시장 주재, 55개 부서별 실행과제 점검 내년 WHO고령친화도시 회원도시 재인증 추진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는 고령자들이 연령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해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 능동적인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도시를 뜻한다.

이번 보고회는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 가입에 따라 이행 중인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3

부별 실행과제를 점검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 2년차를 맞아 일자리, 지역사회활동 참여, 보건·복지, 안전, 교통서비스, 주거 분야 맞춤형 고령친화 정책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및 확충,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강화, 독거노인 공영 장례 서비스 도입, 저상버스 운행 확대, 주거약자에 집수리 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